

의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박국

-복음으로 여는 하박국-

하박국 2:4, 로마서 3:23-24

정운돈 목사님

* **렘2: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롬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준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사 드립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거룩한 성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절대불가능한 영육 간의 부분들이 자유될 뿐만 아니라 이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명, 사명, 소명을 위하여 그러한 직장과 가정, 가문과 세계복음화와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함악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아파하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미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시간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것으로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언약의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은혜로 주일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해왔지만 개인적으로 의심나는 것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문이 생기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계속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도 없던 학창시절, 시간만 나면 기독교 서점을 찾아가서 책을 뒤적이며 내 스스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누군가에게 수동적으로 배우기보다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다면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는 분들을 본다. 어찌 보면 가장 속 편한 신앙처럼 보여 부럽기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무조건 믿는 분들은 인생에 진짜 위기와 문제가 닥쳤을 때 말씀의 뿌리가 없어 쉽게 흔들리고 만다. 내면의 깊은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치열하게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한다(그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3:19-20).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철저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두려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양다리를 걸친 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결코 그런 적당한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는 차갑든지 뜨겁든지(계3:15-16)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라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파고들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응답을 받아냈다. 흔히 하박국을 단순한 '의심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처절한 불신앙과 갈등의 끝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해답을 얻어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위대한 인물이다. 인생을 살며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거나 핑계와 변명을 대는 삼류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뱀, 여인에게 핑계를 대다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 반면 직장에서나 학업에서나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치열하게 질문하는 사람은 더 잘하기 위해 몸

부림지는 일류인생이다. 핑계 대는 자와 해답을 찾기 위해 질문하는 자는 겉보기엔 비슷해도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만큼이나 다르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히11:1). 돈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을 쫓는 사람은 평생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복음의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속에서 이미 행복을 누리며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이다. 최근 운동현장에서 솔비이라는 아이가 있다.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여 아이를 혹독하게 가르쳤다. 아이가 힘들어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때조차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 아이의 끈기 있는 모습에서 이미 국가대표의 자질을 보았고, "미래에 금메달을 딸 너를 위해 미리 사진을 남겨둔다"며 엄마의 허락을 받고 함께 셀카를 찍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과 저 교회는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가야 한다.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승리한 결과를 향해 가는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 단위의 순이익을 창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왔다. 비록 나는 목사가 되어 돈을 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조 단위의 이익을 내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위대한 산업선교의 거부가 탄생할 줄 굳게 믿는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등반가는 실패를 염두에 두고 오르지 않는다. 오직 정상을 정복하겠다는 확신만을 품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은 철학적이고 근본적이지만 우주의 창조와 기원은 현대과학이나 실험실의 검증으로 밝혀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창조는 과학을 넘어서 초과학(형이상학)의 영역이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진화론 역시 수백 년 전 학자의 이론일 뿐, 결코 실험으로 증명된 과학적 진리가 아니다. 인간의 30억 쌍의 DNA염기나 염기서열이 조금만 어긋나도 생육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화론은 성립할 수 없다. 삼성에 다니는 한 박사 김사님은 "아기를 키워보니 누군가의 철저한 돌봄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진화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고백했다. 답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묻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성인으로 지으셨다. 나는 설령 뱀속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도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완벽한 복음의 논리를 어찌 거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기에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자녀가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부모의 말을 거역하듯 인간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책임지듯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씻어주셨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 이는 철저히 '나의 이익'을 조건부로 삼는 기복적인 2등 믿음이다. 진정한 1등 믿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다. 그 레마만 성경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의 삶을 살아가 수 있다. 직장이든 신앙생활이든 끝까지 꾸준히 버텨내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한때 내가 모셨던 목사님께서 "목회 오래 하신 분과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이 가장 존경스럽다"고 하셨을 때, 충각이었던 나는 잘 몰랐으나 살다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낀다. 30년, 40년을 묵묵히 버텨내며 후대에게 귀중한 신앙과 산업의 유산을 남기는 성공적인 여정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서론

오늘 살펴볼 하박국서를 보면, 지난 번 공부한 나훔서가 앗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이 하박국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 배경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렘2:4, 롬1:17, 갈3:11, 히10:38)"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바로 하박국에게 주어졌다는 배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 많은 성경에 등장하며, 마르틴 루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 말씀은 의심 많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메시지도, 참된 믿음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하박국은 처음부터 덮어놓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기도도 그 뜻을 알고자 치열하게 질문하여 해답을 얻어낸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하박국의 의문과 하나님의 답변

1) 첫 번째 의문 : 어찌하여 유다 백성 안에 죄악이 난무합니까? 하박국은 1장 3-4절에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겹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쉽게 행하여짐이니이다"라며 하나님께 절규했다. 하나님

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떻게 그토록 곁달과 강포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지 율분을 토한 것이다. 오늘 날에도 끊임없이 이념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교회가 문제라니, 정치인이 문제라니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더 문제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Projection,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무의식적 결핍, 분노, 두려움 등을 타인의 탓으로 돌려 부정하려는 방어기제)'라고 부른다. 자신의 내면이 복음으로 치유 받지 못해 자옥처럼 불행하니까 밖을 향해 끝없이 분노와 핏겨를 쏟아내는 것이다.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 "친절한 금지씨"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명확히 답하셨다. "네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분노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타락한 유다 백성을 철저히 멸망시키고 심판하겠다."

2) 두 번째 의문 : 어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놀라며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며 따졌다. 갑자기 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1장 17절에서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항의했다. 당시 고대 전투에서는 적군을 향해 거대한 그물을 던져 사람들을 짐승처럼 움아매어 노예로 팔고 갔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도 저토록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바벨론을 들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냐고 따져 묻은 것이다. 이것이 과연 맞느냐며 또 다시 "어찌하여"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늘 이와 같다. "어찌하여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인가"라며 끊임없이 불평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인생의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만과 의문을 품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목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하셨다. "내 자녀가 미래에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가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크게 써 붙이라고 하셨다면 누가 믿었겠는가.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라. BTS가 전 세계를 휩쓸며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얼마 전 45개국 이 모인 로보경진대회에서 출전국 90% 이상이 중국계 로봇부품을 가져다 조립한 한 반면, 대한민국 부산대학교 팀은 100%자체기술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렇게 놀랍게 들어 쓰시는 것이다. 인권과 교권이 무너져 내리고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과 무기력에 빠진 현대교육의 붕괴 속에서 세상 학자들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진정한 해답이다. 교회주일학교의 시스템에서 근대 공교육과 대 학교교육이 파생되었듯, 세상이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는 다시 진리의 원조인 교회로 돌아가 시대를 살려내야 한다.

2. 하박국이 깨달은 복음과 믿음

1)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2:4) 갈등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 답을 주신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며 그 속엔 거짓뿐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큼 훌륭하고 정직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단번에 끝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복음을 믿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모든 면에서 남의 죄를 탓하기보다 나 자신부터 온전하게 살아가라(마5:48, 마7:3). 빛이 되어라(마5:14-16). 항상 기뻐하라. 인상을 찌푸리지 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살전5:16-18).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상태이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아아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나 역시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래야 짜증을 내지 않고 성경을 읽으며, 그래야 비로소 성공자의 길을 걷게 된다.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 성경을 읽는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게임에 빠져 망하거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의 타락과 마약에 망하고 귀신 들리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사역을 할 때 전과 40명, 50명에 달하는 마약중독자들을 만났다. 어느 날 밤 그들에게 "솔직히 환각이냐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모인 사람의 90% 이상이 손을 들었다. 손을 들지 않은 한 청년에게 이유를 묻자, "저는 귀신은 안 보지만, 피투성이 여자가 계속 쫓아오거나 방바닥을 뜯어보니 시체가 가득 쌓여 있는 끔찍한 악몽을 매일 꾸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영혼과 삶이 사탄과 마약에게 완전

히 장악당해 있음을 처절하게 인지하고 있다. 차라리 이중, 삼중의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살아가는 교만한 종교인들보다 철저히 바닥을 치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이 범죄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훨씬 진실하고 같길하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군가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때,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정확히 나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는 남을 지적할 자격이 없는 300% 철저한 죄인이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은혜의 구원을 선포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 하나만으로 값없이 거저 선물 받은 것이다.

2)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이 가득하리라(합2:14)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237나라 5000종족 살리는 선교의 위대한 미래를 보여주셨다. "하나님,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 언제 복음화가 되고, 언제 사람이 거듭나며, 언제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라고 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통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는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성취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WRC(세계 램프대회)에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상관없다. 못 가시는 분은 현장에서 300%응답을 받고, 가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더 큰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언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를 기필코 세우실 줄 믿는다.

3) 오직 여호와와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여다(합2:20)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조금하게 의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질투하고 투덜거리지 말라. 갈등하지 말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 세상에는 불만, 의심, 의견, 질문이 많다. 그러나 진짜 성령충만한 사람은 잠잠하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출14:13)"고 하지 않았던가.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합2:20)"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능력을 가지고 시간표에 따라 일을 이루어가니 너는 잠잠히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의심하지 말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으며, 오직 예배에 성공하며 강단말씀을 붙잡았다. 그 결과 3장에서 하박국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오직 믿음만을 고백하는 선지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4) 하박국의 절대 믿음 고백(합3:17-18)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다. 하박국의 질문과 항의는 사실 불평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였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사람 앞에서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라. 그것이 기도이다. "어찌하여 우리 집,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직장은 이러습니까?"라고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과 해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하박국은 초특급 믿음, 1등 인생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하박국의 고백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모든 육신적 조건이 무너지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절대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올 때까지 집중하여 기도하라. 조건과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기도를 통해 내 속사람이 달라지면 결국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내 경험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항상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라.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결론

결론이다. 어떠한 갈등과 의문,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기도로 정확한 답을 얻고, 나의 현장에서 사단의 망대를 쫓는 복음의 70망대를 세팅하라. 그리하여 237개 나라, 5천 종족, 1천만 제자를 세우는 하박국과 같은 '복음의 절대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언약의 말씀, 믿음의 비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연약하며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항상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